



KS 개막전 16일로 연기

PO 5차전 비로 취소... 오늘 두산-SK 재경기



가을비 때문에 한국 시리즈 개막 일정이 하루 늦어졌다.

1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이 우천으로 인해 노계입으로 선언됐다.

2회초 두산의 선두타자 김현수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으로 1-0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어진 김동주의 타석 때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오후 6시26분 경기가 중단됐다. 한 때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그라운드

정리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경기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폭우가 내려 오후 7시25분 결국 노계입이 선언됐다. 플레이오프 사상 첫 강우 노계입이다.

플레이오프 최종 승자가 가려지지 않으면서 15일 개막예정이던 한국시리즈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플레이오프 일정이 하루 늦어지면서 한국시리즈도 하루 일정을 늦춰 16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이날 취소된 플레이오프 5차전은 14일 오후 6시 문학구장에서 열린다. SK에서는 채병용이 출격하고, 두산은 세데노가 등판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 두산 베어스-SK 와이번스 경기 가 비로 인해 취소됐다. 구장 관계자들이 흙차포 등을 이용, 물을 빼고 있다. /연합뉴스

4인4색 완벽투... V10 내손으로

슬라이더·싱커·명품 커터·돌직구 무장 KS 등판 준비 끝

4인4색의 마운드를 앞세운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16일 프로야구 '가을잔치' 한국시리즈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시작된다. 1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초대 받은 KIA는 최근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능숙한 상대를 맞아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KIA는 '한방'의 위력으로 정규시즌 1위를 달성했지만 타선의 짜임새와 기동력은 상대적으로 열세다. 무엇보다 경험부족은 단기전을 앞둔 KIA의 최대 약점이다. 하지만 올 시즌 KIA의 승승장구를 주도했던 든든한 마운드가 한국시리즈의 전장을 밝히고 있다.

KIA는 앞선 두 차례의 흥행전을 통해 마운드 점검을 마쳤다. 8일 야간경기에서는 윤석민과 로페즈, 11일 주간경기에서는 양현종과 구본슨이 토종과 양방의 맞대결을 가졌다. 각각 5이닝씩을 소화해낸 4명의 투수는 구질을 점검하면서 한국시리즈 등판준비를 끝마쳤다.

윤석민의 완벽부활은 KIA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다. 윤석민의 마지막 등판은 9월5일 두산과의 흥행기였다. 이날 3과3분의 1이닝 동안 10실점을 했던 윤석민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시즌을 접었다.

한국시리즈 등판을 목표로 차근차근 재할

을 했던 윤석민은 8일 한 달 여만의 등판에서 68개의 공을 던지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윤석민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6km. 충분한 휴식으로 구위가 살아난 윤석민은 슬라이더(136km), 체인지업(126km), 커브(120km), 투심(141km) 등 68개의 공을 던지며 몸을 풀었다.

경기가 끝난 후 윤석민은 "100% 만족스럽다"는 말로 한국시리즈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 됐음을 알렸다. 윤석민의 부활로 KIA 마운드의 운영폭이 한층 넓어지면서 KIA는 마운드 기선제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한국시리즈 마운드를 책임질 네 명의 투수는 올 시즌 49승을 합작하며 팀의 1위 수성에 앞장선 수훈선수들이다.

지능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윤석민은 9승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마무리와 선발을 오가는 희생까지 감수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공격적인 피칭의 로페즈는 특유의 싱커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볼런진 운용에 솜통을 띄워줬다. 유일한 좌완 선발 양현종은 150km에 육박하는 직구로 '미완의 대기'에서 '신에 좌완'으로 재탄생했다. '명품커터'를 보유한 구본슨은 일본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투구로 선보였다. 시즌 우승의 주역들이 다시 한 번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어깨 통증 김상현 '휴~ 다행'

별이상 없어... 배팅 훈련서 장외훈련
KIA 한국시리즈 앞두고 부상경계령

한국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KIA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졌다. 특히 모를 부상 때문이었다.

13일에는 내야수 홍세완이 손목 부상으로 최경환과 교체됐고, 앞선 12일 김상현은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코칭

스태프진의 가슴을 찡찡하게 했다.

송구 동작을 하다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김상현은 이날 즉시 훈련에서 제외됐다. 다행히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김상현은 13일 다시 방방이를 들었다.

아직 통증을 느꼈던 부위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김상현은 배팅 훈련 도중 장외 훈련을 쏘아올리는 등 여전히 타격각각을

보였다.

서재용도 요주의 인물이다. 서재용은 지난 8일 자체 흥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으로 중간에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엔트리 탈락 위기까지 몰렸었다. 구위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정상컨디션이 아닌만큼 서재용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코칭스태프의 신경이 곤두서었다.

전력으로 한국시리즈를 준비했던 선수단은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움직임을 조금 늦췄다. 13일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훈련을 소화한 선수단은 이



날 저녁 숙소에서 두산과 SK의 플레이오프 5차전을 단체 관람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

I·LOVE·KIA

〈우치동물원 호랑이 삼남매〉

“KS응원 갑니다”

개막전 10번째 선수 등장

한국시리즈에 KIA 타이거즈의 'V10'을 기원하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광주 우치동물원의 뱀갈 호랑이 새끼 세마리가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개막전에서 KIA의 10번째 타자로 등장한다.

한국시리즈를 찾게 되는 호랑이 삼남매는 KIA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 6월6일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호랑이들은 KIA의 한국시리즈 10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이', '러브', '기아'라는 이름을 얻었다.

한국시리즈 이벤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뱀갈 호랑이 삼남매는 자신의 이름표를 달고 10번째 선수로 경기장에 입장 해 KIA의 가을 잔치를 축하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우치동물원 제공〉

여자 골프의 젃줄 '전남 녹색배' 드림 투어 막내려

1개월 대장정 선수 2,400명 참가... 15차전 이승현 우승

무안CC에서 펼쳐진 '전남 녹색배 2009 KLPGA 드림 투어'가 멋진 추억과 우수한 기록을 쏟아내며 1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3일까지 1개월간 5회에 걸쳐 '전남 녹색배 2009 KLPGA 드림 투어'가 무안CC에서 선수 2천400여 명, 임원·관객 2천6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개월여 대회기간 동안 선수와 임원 2만4천여 명(연인원)의 장기 체류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은행 '관광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를 적용,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액 5만9천66원, 생산유발효과 10만1천312원으로 환산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24억 원의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회 각 입상자는 ▲2009 KLPGA 드림 투어 11차전(9월14~15일) 우승 이정(133타)·2위 안송이(134타)·3위 우세희(135타) ▲2009 KLPGA 드림 투어 12차전(9월21~22일)에 우승 이승현(134타)·2위 김다나(135타)·3위 김지현(136타) ▲2009 KLPGA 드림 투어 13차전(9월28~29일) 우승 조윤지(131타)·2위 장민정(132타)·3위 변현민(133타) ▲2009 KLPGA 드림 투어 14차전(10월 6~7일) 우승 최하영(138타)·2위 이정민(142타)·

3위 김초희(142타) ▲2009 KLPGA 드림 투어 15차전(10월 12~13일) 우승 이승현(134타)·2위 김세민(135타)·3위 장민정(136타) 등이다.

이번 대회 1~3위 입상자는 2010 KLPGA 제1부 리그에 출전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나갈 계획"이라며 "동계훈련의 적임지로 전남도 골프장을 홍보해 비수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